

반려인의 펫티켓 “개💩에 양심까지 버리진 마세요”

(펫+에티켓)



목줄·배변 봉투는 기본적인 에티켓
외출시 없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반려견 물림 사고 등 돌발사고 예방



#지난해 5월 경남 진주시 한 주택에서 목줄이 풀린 핏볼테리어가 산책 중이던 강아지와 사람을 공격했다. 공격을 받은 피해 견은 엉덩이 살이 찢겨 40바늘 넘게 꿰맸고 이를 말리던 견주도 엄지손가락을 물려 크게 다쳤다. 하지만 핏볼테리어 견주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2015년 7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진돗개가 지나가던 행인의 안면을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왼쪽 뺨이 물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견주는 진돗개가 평소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음에도 함께 외출하면서 임마개나 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아 과실치상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펫티켓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Pet)과 매너를 의미하는 에티켓(Etiquette)이 합쳐진 신조어로 반려동물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기본 예의를 의미한다.

기본적인 펫티켓으로 '목줄'과 '배변 봉투'를 꼽을 수 있다. 목줄 없이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집에서는 순한 반려견이라도 자극적인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반려견이 흥분해 차도로 뛰어들거나 사람 혹은 다른 반려동물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2015년 조사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에는 245건에 불과했던 물림 사고는 2012년에는 2배 증가한 560건, 2013년에는 10% 증가한 616건 발생했다.

반려견 물림사고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통시설, 상업시설, 여가 및 문화시설 등 타인과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291건, 전체의 13.3%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반려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목줄 착용은 법으로도 명시돼 있다. 동물보호법 13조 2항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단속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도와 홍보에 집중하고 실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월드컵공원 등 7개 서울시 직영공원에서 적발된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6280건,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101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계도에서 그친다.

목줄 착용뿐 아니라 반려견 배설물 수거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반려견 배변 속 기생충이 사람에게도 여러 질병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어 미관상이나 위생을 위해 즉시 처리해야 한다.

또 음식접이나 아이들이 많은 곳과 같이 동물 출입 금지구역에 들어가지 않고 정기적으로 예방접종과 구충제 강아지가 걸릴 수 있는 질병 중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반려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함부로 만지거나 먹을 것을 주는 행동을 삼가 해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주의하고 노력해야 한다.

김담희 객원기자

반려견 크레이트 교육하는 방법



최인영의 반려동물 SOS

잘 활용하면 펫시터가 되는 반려견 크레이트(문을 잠글수 있는 집) 사용법 알아보자. 손님이 왔을때 반려견이 사납게 짖어 대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 보호자와 떨어

지면 분리불안을 느껴 배뇨배변, 소리 짖음 등 문제행동을 보인다. 일부 반려견은 천둥소리, 공사장 소음 등에 큰 공포를 느끼는데 이럴 때 진정하기 위한 휴식처가 필요하다. 동물병원에 갈 때도 크레이트 교육이 된 반려견이라면 손쉽게 데려갈 수 있다.

종종 반려견이 좁은 곳에 갇혀있어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들은 구석지고 좁은 곳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불안

감을 느끼거나 공포를 피하기 위해 침대나 책상 밑 혹은 소파 뒤로 숨는 개들을 볼 수 있다. 임신한 어미개가 분만이 다가오면 외지고 좁은 곳을 찾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크레이트 교육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일단 크레이트에 대한 거부감 먼저 없애야 한다. 처음 접하는 낯선 물건에 대해 불안감이 있는 반려견을 강제로 넣고 문을 닫는다면 반려견은 굉장한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처음에는 크레이트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크레이트 안과 밖에서 놀아주고 간식을

넣어주는 등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콩장난감을 활용하면 반려견이 좀 더 긴 시간동안 크레이트에서 보낼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하다. 반려견이 크레이트에 거부감이 없어진다면 그 다음에 잠깐 문을 닫았다가 다시 꺼내 간식을 주는 등 칭찬을 한다.

반려견이 크레이트에서 간식이나 장난감을 물고 밖으로 나온다면 다시 넣어주는 행동을 반복해 크레이트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한다. 크레이트에 쿠션이나 담요를 넣어주면 반려견이 좀 더 아늑하게 느낄 수 있다.

간혹 문을 닫자마자 반려견이 불안한 기색을 보인다면 칭찬으로 진정시킨 후 진정되면 꺼내서 간식을 준다.반려견이 문을 닫자마자 불안해한다고 바로 꺼내주면 점점 더 문을 닫을 수 없게 된다.

크레이트 교육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반려견이 문제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징벌을 위해 크레이트에 가두고 문을 닫아 열어주지 않으면 개는 갇혔다는 공포심에 빠져 크레이트를 더욱 싫어하게 될 수 있으니 벌칙으로 사용에선 안 된다.

러브펫동물병원 대표원장

도전·열정·패기로...제대 한 달 만에 아마추어 카레이스 석권

돌아온 슈퍼루키 김동규, 실패가 그를 키웠다

KSF 아반떼 챌린지레이스 '폴투윈 우승' 김동규

2013년 500:1 오디션 뚝고 최연소 데뷔 슈퍼레이스 기회 잡았지만 높은 벽 실감

올해 4월 제대후 아마추어대회 도전 꿈꿔 TEAM HMC 선수 기회잡고 위풍당당 우승



'제대 한 달 만에 아마추어 최강자 등극'
아마추어 카레이서 김동규(23·TEAM HMC)는 지난 5월27일 강원도 인제스피드돔에서 열린 2017 KSF(코리아스피드 페스티벌) 현대 아반떼챌린지 레이스 1차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발휘하며 27분 24초381의 기록으로 폴투윈(예선 1위·결승 1위) 우승을 차지했다.

2년간의 사회복무요원 생활을 마치고 지난 4월23일 제대한 뒤 출전한 첫 경기였다. 하지만 실력은 전혀 녹슬지 않았다. 7랩 이후로는 독주를 이어갔고, 2위를 7초차 이상으로 따돌리며 스무살 시절 카레이서 오디션에서 슈퍼루키로 선발되었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열정하나로 도전한 모터스포츠의 세계

열정은 스무살 청춘이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유일한 도구다. 고등학교 시절 F1(포뮬러원) 경기를 배경으로 한 실버스터 스텔론 주연의 영화

'드리븐(Driven, 2001)'을 본 후 카레이서를 꿈꾸게 된 김동규(23·TEAM HMC)는 오로지 속도와 경쟁이 전부인 모터스포츠의 세계에 자신을 내던지기로 마음먹었다.

때로 어떤 열정은 높은 상성기류를 만나 꿈에 쉽게 다가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김동규가 그랬다. 김동규는 20살 때인 지난 2013년 가능성 있는 아마추어 레이서를 뽑는 오디션인 EXR TEAM106(레이싱팀)의 슈퍼루키 프로젝트에 지원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가까스로 면허를 따 오디션장에 찾지만 실제 운전 경험은 전무했다. 그저 고교시절부터 자동차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열심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레이싱에 대한 열정만큼은 남달랐다. 배운 것이 없기에 운전은 과감했고, 랩타입도 비교적 편찮았다.

당시 EXR TEAM106팀의 감독겸 선수였던 류시원 감독은 김동규를 최종 낙점하며 "당장의 실력보다는 열정과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역대 최연소의 나이에 무려 500:1의 경쟁률을 뚫은 순간이었다. 최종 2인에 들어 루키로 선발됐고, 2013년 CJ 슈퍼레이스 N9000클래스(1600CC이하 저배기량 아마추어 레이싱경주)에 출전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슈퍼레이스 무대는 매서웠다. 빠르게 성장하기는 했지만, 실전 경험이 전무한 김동규가 쉽사리 넘볼 수 있는 무대가 아니었다. 1년 동안 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경기에 참가했지

만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했고, 결국 첫 도전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현대모터클럽 든든한 지원 큰 도움, 국내 최고의 프로레이서 될 것

가능성 있는 슈퍼루키에서 다시 평범한 21살로 돌아온 김동규는 자동차 관련 행사와 레이싱스쿨 인스트럭터로 활동하다 2015년 입대했다. 꿈은 멀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김동규는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 두 번째 기회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첫 목표는 KSF 아반떼 챌린지레이스였다. 총 6전으로 치러지는데 시즌 챔피언이 되면 프로모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 있는 프로등용문이다.

자신이 소유한 차(아반떼)를 대회 규정대로 튜닝을 한 뒤 참가하는 아마추어 대회라고는 하지만 국내 최고 대회라 출전 선수들의 수준은 프로에 근접할 만큼 높고 경쟁도 치열하다.

김동규는 제대 후 그 동안 모은 돈으로 아반떼를 구입해 대회 준비를 시작했지만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그 때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마니아 고객을 구성한 TEAM HMC(Hyundai Motor Club) 선수를 선발했는데 김동규는 여기에 지원해 당당히 합격했다.

김동규는 "대회를 앞둔 선수들은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하지만 아마추어 선수들은 모든 대회 준비를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군 제대 직후라 더욱 정신이 없었는



실력과 이미지 모두 인정받는 국내 최고의 프로드라이버가 되는 것이 김동규의 꿈이다. 지난 5월 27일 인제스피드돔에서 열린 2017 현대 아반떼 챌린지 레이스 1전에서 우승하며 목표를 향한 첫 걸음을 뒀다.
사진제공 | TEAM HMC

데 TEAM HMC에서 많은 짐을 덜어줬고, 또 주변의 선배 드라이버들이 여러 조언을 해준 것이 개막전 우승이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또한 "TEAM HMC 소속이 되면서 전문 드라이빙 수트, 전속 레이싱 모델, 차량 정비사, 경기 출전에 따른 기타 경비 등의 지원을 받은 것도 좋지만 나처럼 도전하는 아마추어 레이서가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맙다"며 팀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

김동규의 목표는 올해 더 많이 포디엄(시상

대)에 올라 시즌 챔피언이 되고, 프로모팅에 스카우트 되는 것이다.

"실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늘 노력하며 습득력이 빠른 것이 나의 유일한 무기다. 열심히 준비하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프로 최고 종목인 6000클래스 스톡카를 꼭 타고 싶다"며 "카레이싱 만큼 나를 가슴 뛰게 하고,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일이 없다.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좋아하는 일에 끝까지 도전해 보고 싶다"며 열정과 패기를 드러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뉴스디자인 | 신하늬기자